

INTAP MAGAZINE 6

연계 지문

수능특강 독서 25쪽

지문 키워드

이, 기, 성, 정, 본성, 감정, 형체, 실체, 지각, 심리, 판단, 호락과, 낙론과, 성리학, 조선후기, 윤리, 마음, 질서, 본질, 현실, 철학, 인식, 인간

확장된 키워드

존재론, 인식론, 본질주의, 실재론, 유학, 감정 조절, 인지능력, 메타인지, 자아, 성찰적 사고, 도덕 교육, 판단력 교육, 인간 본성에 대한 통치 철학, 유교적 정치 윤리, 도덕적 판단, 책임 윤리, 감정과 이성의 갈등, 감정의 뇌 작용, 의사결정 기제, 직관과 논리, 공자·맹자 사상 vs. 칸트·데카르트 인식론, 인물 내면 묘사, 갈등 구조, 내면 수양, 도덕 계율, 욕망 절제

본성의 질서와 감정의 역동성: 유학적 인간관과 인식 행위의 경계

유학의 철학적 전통에서 인간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으로 ‘성’과 ‘정’의 구분은 단순한 이론상의 분류를 넘어 인간 이해의 중심축을 형성한다. 이때 ‘성’은 인간의 본성으로, 선천적이고 고정된 윤리적 질서를 나타내며, ‘정’은 외부의 자극에 따라 발생하는 감정으로 이해된다. 이 두 요소는 인간 내면의 세계를 이원적으로 분할하며, 각각의 위치와 기능에 따라 인간 행위의 해석 방향을 결정짓는다.

본성은 그 자체로 질서이며, 변하지 않는 근원적 기준이다. 유학에서는 이를 우주의 이치와 조응하는 존재의 기반으로 삼는다. 본성은 외적 자극이나 경험에 의해 변형되지 않으며,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윤리적 기준으로 설정된다. 이에 비해 감정은 외부 자극에 따라 일시적으로 드러나는 내면의 움직임으로서, 본성과는 달리 상황적, 개별적 특성을 띠게 된다. 음식 냄새에 끌려 식욕이 생기고, 책의 줄거리에서 슬픔을 느끼는 것과 같은 모든 감정적 반응은 이러한 외적 자극에 대한 내면의 표출이다.

유학은 이 감정이라는 요소를 배제하지 않되, 그것이 본성을 가리는 혼탁한 흐름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였다. 감정이 인간의 자아를 지배할 때, 본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감정에 휩쓸린 판단은 자칫 도리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정은 절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감정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구성 요소로 간주되며, 단순히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 교화와 수양을 통해 정제되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유교 전통에서 말하는 사단칠정의 구분은 이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사단은 본성에서 비롯된 네 가지 근본 정서로, 인, 의, 예, 지에 해당하는 긍정적 정서를 말하며, 칠정은 인간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일곱 가지 감정 상태로서 희, 노, 애, 락, 애오욕 등의 감정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본성에서 유래한 정서와 외부 자극에 따

른 감정 사이의 위계이다. 감정은 자극에 반응하여 일시적으로 생성되지만, 본성은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도 존재하는 근본이므로, 인간의 인격 수양은 감정이 본성을 해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자아는 곧 조절의 주체이자 감정과 본성의 매개자로서 기능한다. 자아는 감정을 억제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감정적 반응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판단은 단지 심리적 반응 이상의 것으로, 인간이 본성의 질서를 얼마나 의식하고 실현하고자 하는가의 문제로 연결된다. 자아가 감정의 노예가 되어 정서적 반응에 즉각적으로 휘둘릴 경우, 그 자아는 본성을 잃고 단순한 자극-반응 기계에 불과하게 된다. 반면 감정을 숙고하고 성찰하며 그것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아는 도덕적 주체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과 본성의 구분은 단순히 이론적 구분이 아니라, 교육과 교화의 실천적 방향을 결정짓는다. 유교 교육이 감정의 억제가 아닌 감정의 정제를 목표로 삼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생이 분노나 기쁨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되,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인가를 학습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된다. 감정을 외면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 속에서 본성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바로 수양이다.

감정의 억압은 필연적으로 심리적 왜곡을 초래한다. 감정은 억눌릴수록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되기 쉽고, 그로 인해 자아는 점점 내면의 균형을 잃는다. 따라서 유학은 감정을 제거할 것이 아니라, 정서적 흐름을 의식적으로 다루는 기술을 강조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의 순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며, 감정의 원인을 자극 그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아 내부의 구조와 연동된 결과로 보는 시각이다. 자극은 감정을 촉발시키는 계기일 뿐이며, 실제로 감정이 발생하는 구조는 훨씬 더 복잡적이다.

예컨대,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감정의 반응이 다르다. 이는 본성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자아가 감정을 처리하는 구조와 습관, 그리고 감정의 누적된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아가 감정의 발생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을 경우, 자기 통제는 어려워지고 항상 외부 탓만 하게 된다. 그러나 자아가 감정의 발생 구조를 내면의 방식으로 파악할 때, 비로소 감정은 자아의 일부로 통합되며, 감정 조절은 가능해진다.

결국 감정은 인간됨의 증거이자 시험대이다. 감정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삶에 대한 반응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감정은 외부에 반응하는 자아의 목소리이며, 본성은 그 감정의 길을 잡아주는 이정표이다. 이 둘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 속에서 함께 존재하며 인간을 구성한다. 유학은 바로 이 긴장과 균형의 예술로서 인간 수양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감정이 있어야 인간이고, 본성이 있어야 인간다우며, 자아는 이 둘을 조율하는 연주자다.

지각의 뿌리를 묻다: 마음의 작용과 조선 성리학의 내적 분열

지각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사물과 현상, 나아가 세계와 타자에 대해 무언가를 ‘앎’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든 과정의 시작점이 지각이라면, 우리는 그것의 뿌리를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까. 조선 성리학의 지적 전통은 이 질문에 대한 사유를 끊임없이 이어왔다. 특히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생한 격렬한 논쟁은, 단순한 이론적 이견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라는 장內에서 벌어지는 인식의 기원과 작용을 둘러싼 깊은 분열을 보여준다. 그 분열의 이름이 곧, 호락파와 낙론파이다.

우선 지각이라는 작용은 마음이라는 바탕 위에서 작동한다. 마음이 없다면 인식도 없고, 판단도 없다. 문제는 이 마음이 지각이라는 작용을 어떤 구조로 작동시키는가이다. 즉, 지각이란 단순히 감각 기관에 반응하여 작동하는 기계적 수용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총체적 기능의 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복잡한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지각은 단순히 외부 자극에 대한 수동적 반응이 아니라, 마음의 능동적 작용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때 ‘작용’이라는 개념은 주목할 만하다. 작용은 존재의 한 측면이 발휘하는 구체적 힘이자,

내면의 원리가 외부로 표출되는 경로이다. 지각은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작용 중 가장 핵심적인 구조로 자리 잡는다.

이 작용의 근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가장 첨예한 논쟁이 바로 호락논쟁이다. 호락파는 지각의 작용을 마음의 능력으로 보았고, 그 근거를 구체적인 인간 심리의 기능적 구조에서 찾았다. 즉, 지각은 마음의 일부이며, 인간은 본성뿐 아니라 심리적 조건 속에서 지각을 발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낙론파는 마음이 지각을 실현하기 하지만, 그 근원은 마음보다 더 근본적인 구조에 있으며, 지각은 그 본질에 있어서 마음의 직접적 산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양 학파는 인식 행위의 성격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호락파의 논리는 경험적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지각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경험을 통해 지각의 작용을 세련되게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각은 마음의 고유한 기능이며, 이 기능은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점차 발현된다. 그들에게 마음은 지각을 품고 있는 실체이며, 그 실체는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능력도 달라진다. 이러한 견해는 인간의 다양성과 개인차를 인정하게 만든다. 사람마다 지각의 수준이 다르다는 사실은 단지 재능의 차이일 뿐 아니라, 마음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훈련되고 확장되었는가의 차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반면 낙론파는 지각을 마음의 결과로 보되, 그것이 단지 심리적 기능의 산물은 아니라고 본다. 그들에게 지각은 보다 정제된 구조, 곧 마음 속 질서에서 비롯된다. 이 질서는 타고나는 것이며, 마음은 그것을 드러내는 통로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지각이 정확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외부의 혼탁이 마음을 흐리게 만들었기 때문이지, 마음 자체가 지각을 잘못 작용시켰기 때문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해석은 마음보다 더 근본적인 판단 기준이 있다고 보며, 인간의 지각이 항상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호락파의 주장에 비판적으로 대응한다.

결국 이 두 학파의 분열은 지각을 어떤 구조적 위상으로 놓을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판단의 차이였다. 호락파는 지각을 마음의 능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하고 확장하는 것이 인간됨의 핵심이라고 본 반면, 낙론파는 지각을 드러나는 질서로 보았기 때문에, 그 질서를 보존하고 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곧 교육의 방향에서도 차이를 낳는다. 전자는 능력의 계발을, 후자는 질서의 유지와 수양을 중시하였다.

이 논쟁은 단지 심리적 작용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논의로 그치지 않았다. 당시 조선 지식인 사회의 정치적 성향, 학문 분파, 교육 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호락파의 입장을 따르는 학자들은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학문을 전개한 반면, 낙론파는 이상주의적이고 도덕 중심적인 학문 태도를 견지하였다. 분파는 단순한 학문적 이념의 다름이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인식이 사회에 어떤 책임을 지는가의 문제로까지 연결되었다.

요컨대, 지각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장에서 일어나는 복합적 작용이다. 그것이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단이 아니라, 판단을 내리고, 관계를 형성하며,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지각은 마음의 핵심적 능력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능력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둘러싼 이견은 단순히 철학적 논쟁으로 그치지 않고, 인간과 사회, 윤리와 교육, 정치와 책임이라는 문제로 확장된다. 조선 성리학의 내적 분열은 결국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세계관의 분기점이었다.

기와 이의 전쟁: 조선 후기 지식인의 존재론적 갈등

조선 유학은 이른바 '리기이원론'이라는 독특한 존재론을 중심축으로 삼는다. 이와 기라는 두 개념은 단순한 철학적 구분이 아니라, 세계와 인간, 삶과 자연의 구조 전체를 구성하는 존재의 양축으로 작동한다. '이'는 만물의 보편적 원리이며, '기'는 그 원리를 실현하는 실체적 구성요소이다. 이 둘은 동양 존재론의 가장 복잡하고도 정교한 사유 구조를 구성하며, 특히 조선 후기 유학자들에게는 그 경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학문적 논쟁의 핵심 주제가 되었다.

‘이’는 형체를 가지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으며, 만물의 구성 이전에 존재하는 순수한 원리이다. 이러한 ‘이’는 법칙을 낳는다. 예를 들어, 나무가 위로 자라고, 불은 위로 솟고, 물은 아래로 흐르는 성질은 각각의 사물에 ‘기’가 작용하기 이전에 설정된 우주의 기본 법칙에서 비롯된다. 이 법칙은 바로 ‘이’의 작용이다. 따라서 ‘이’는 존재의 가능 조건이자 원천이다.

반면 ‘기’는 형체를 가진다. 그것은 구체적이며 감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질료이다. 돌, 나무, 사람, 구름, 심지어 소리와 냄새에 이르기까지, 형체를 이루거나 감각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은 ‘기’의 산물이다. ‘기’는 운동하고 변화하며, 농도와 상태에 따라 다른 형상을 취한다. 물은 기의 밀도가 낮은 상태이고, 바위는 기가 응축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기’는 세계의 구성물이며, ‘이’는 그 구성의 근본 방향을 규정하는 원리이다.

문제는 이 두 요소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만나는가이다. 조선 성리학은 이 만남의 방식을 해석함에 있어 두 가지 대립되는 입장을 낳았다. 하나는 ‘이’가 주도적이며, ‘기’는 그에 따라 실현되는 수단이라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기’가 실재의 주역이며, ‘이’는 그 기 속에 잠재된 법칙이라는 입장이다. 이 차이는 단순한 이론적 분류가 아니라,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인간이 무엇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석으로 이어진다.

‘이주기종설’을 따르는 입장은 ‘이’가 근본이고 ‘기’는 종속된다고 본다. 이 입장에 따르면, 모든 사물의 형체나 현상은 본래 ‘이’의 방향성에 의해 결정되며, 기는 그 구현 수단일 뿐이다. 예컨대 인간의 도덕성, 사회 질서, 천체의 운동 등은 모두 ‘이’에 의해 질서 있게 존재하며, 기는 그러한 질서가 드러나는 방식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입장은 존재를 구성하는 질서가 외재적 조건이나 물리적 실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하던 보편적 법칙의 반영이라고 본다.

반대로 ‘기본이종설’을 따르는 입장은, 모든 존재는 기의 결합과 운동에 의해 실현되며, ‘이’는 그 속에 포함된 규칙성일 뿐이라고 본다. 이 입장에서 ‘이’는 실체가 아니라 개념적 추상이며, 실질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오직 ‘기’이다. 사람의 감정, 사물의 충돌, 계절의 변화, 별의 운동 이 모든 것들은 기의 응축, 이완, 이동, 소멸이라는 구체적 과정의 결과다. ‘이’는 존재의 표면 아래 흐르는 해석의 틀일 뿐, 실질적 행위의 주체는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논쟁은 결국 존재의 본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수렴된다. 어떤 학자는 존재의 구성보다 존재의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학자는 존재의 방향보다는 그 구성과 실현 자체를 강조한다. 전자가 ‘이’ 중심적이고 후자가 ‘기’ 중심적이다. 이 차이는 철학을 넘어서 자연에 대한 태도, 인간관, 사회 운영 원리, 교육 철학, 심지어 예술론과 과학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중심의 세계관은 질서를 중시하고, 규범을 강조하며, 이념적 이상을 추구한다. 반면 ‘기’ 중심의 세계관은 현상에 주목하고, 경험적 분석을 중시하며, 구체적인 사물의 상호작용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 한다.

조선 후기 유학자들은 이 두 입장을 놓고 깊은 고뇌를 거듭했다. 예컨대 정제두는 ‘기’의 우위를 주장하면서, 기존의 성리학적 이상주의를 현실과 유리된 공론으로 비판하였다. 반면 이간은 ‘이’의 질서가 무너질 경우 인간은 단지 욕망의 기계가 된다고 경고했다. 이들의 논쟁은 단지 철학적 소모전이 아니라, 당대 사회의 혼란과 개혁 욕구, 전통의 계승과 재해석이라는 맥락 속에서 터져 나온 존재론적 갈등이었다.

우주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인간은 그 우주 속에서 무엇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 ‘이’인가, ‘기’인가. 이 논쟁은 조선 유학의 정점에서 던져진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었다. 그리고 그 물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질서를 말하고, ‘물질’이라는 이름으로 실체를 말할 때마다 되살아난다.

도덕 판단의 뇌과학과 성리학: 감정은 이성을 방해하는가?

도덕적 판단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옳다’고 믿는 일을 선택하거나, ‘그르다’고 여기는 일을 거부하는 행위는 단순한 감정의 반사 작용이 아니라, 인식과 분별, 내적 기준에 따라 작동하는 복합적 과정이다.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가를 두고, 전통 성리학과 현대 뇌과학은 서로 다른 논리를 전개해왔다. 하나는 질서를 중심으로 한 윤리 체계를 중시하고, 다른 하나는 생물학적 인지 기제를 탐색한다. 이 양자의 교차점에서 우리는 감정과 이성, 통제와 자율성 사이의 긴장과 조화를 조망할 수 있다.

성리학은 도덕 판단의 출발점을 인간 내면의 질서에서 찾는다. 이 질서는 외부에 의해 부과된 규칙이 아니라, 인간 존재 그 자체에 내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인간은 본래 도덕적 존재이며, 도덕성은 외적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내면의 질서가 외화된 것이라는 전제가 여기에 깔려 있다. 따라서 교육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내면의 도덕 질서를 계발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도덕은 감정이 아닌 이성의 산물이며, 이성이 감정을 통제하고 조율할 때 비로소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성리학 전통의 핵심이다.

그러나 현대 뇌과학은 이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뇌영상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은 전전두엽, 편도체, 측두엽 등 다양한 인지 및 정서 처리 부위와 연결되어 있다. 특히 전전두엽은 통제와 계획, 판단의 중심이며, 편도체는 감정의 반응성과 관련된다. 이 두 영역이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통해, 도덕 판단이 단순히 이성만의 작용이 아님을 입증하고자 한다. 즉, 판단은 감정과 이성의 혼합된 결과물이며, 감정은 도덕적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은 성리학에서 말하는 ‘감정의 통제’와는 정반대의 방향을 지향한다. 성리학은 감정이 이성을 흐릴 수 있다고 보았고, 따라서 교육은 감정의 억제나 통제를 강조했다. 그러나 뇌과학은 감정이 억제될수록 판단의 적절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판단의 맥락을 형성해 주는 정서적 기준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타인의 고통을 보고 연민을 느끼는 것은 감정이지만, 그 감정이 있어야 도덕적 판단이 촉발된다. 이성을 통해 판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통과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양자의 입장은 감정의 위치를 둘러싸고 근본적으로 엇갈린다. 성리학은 이성을 정점에 두고 감정은 통제되어야 할 하위 요소로 간주하며, 도덕적 질서는 이성적 분별을 통해 유지된다고 본다. 반면 뇌과학은 감정이 판단의 핵심적 요소이며, 감정과 이성이 상호 의존적일 때에만 도덕적 판단이 성숙해진다고 본다. 이는 통제의 개념을 재구성하게 만든다. 전통적 통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적 통제는 감정을 수용하되, 그것을 과도하게 확장시키지 않는 균형 유지로 이해된다.

이러한 통제 개념의 변화는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거 교육이 도덕 교범을 중심으로 규범의 내면화를 추구했다면, 오늘날의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을 강조한다. 자율성은 강제되지 않은 판단을 의미하며, 이성뿐 아니라 감정, 직관, 경험까지를 포함하는 판단 능력을 요구한다. 이는 윤리 교육이 단순한 도식 암기나 처벌 중심의 규율이 아니라, 내면의 다양한 요소를 조율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은 남는다. 감정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감정에 기반한 판단이 이기심이나 편향으로 흐를 위험은 없는가?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서도 감정이 과도할 경우 판단력이 왜곡된다는 결과가 존재한다. 극도의 분노나 공포는 판단 기능을 마비시키고, 편도체의 과잉 반응은 전전두엽의 이성적 제어를 방해한다. 즉, 감정은 판단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판단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이 점에서 성리학의 ‘통제’ 개념은 다시금 설득력을 얻는다. 문제는 통제의 방식이다. 억압이 아닌 이해와 훈련을 통해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도덕 판단은 결국 이성과 감정, 통제와 자율성, 교육과 실천의 교차점에 위치한 인간적 행위이다. 우리는 판단을 내릴 때마다 감정의 영향력을 의식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동시에 이성적 기준을 맹신할 수도 없다. 성리학은 질서를 중시하고, 뇌과학은 인지를 해체하며, 교육은 둘 사이의 긴장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감정은 이성을 방해하는가? 때로는 그렇다. 그러나 감정 없는 이성은 메마른 기계이며, 이성 없는 감정은 위험한 불꽃이다. 진정한 도덕 판단은 이 두 요소가 공존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